‘넘사벽’ 광주 FC

〈넘을수 없는 4차원의 벽〉

서울이랜드전 2-0 승리 19경기 연속 무패…K리그2 최다 무패 새역사
윌리안 1골 1도움·팀 6연승 신기록 …전남드래곤즈 3경기 연속 무패

광주FC가 K리그2의 새로운 역사가 됐다.

광주가 지난 14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9K리그2 19라운드 서울이랜드와의 원정경기에서 2-0으로 이기며 6연승에 성공했다.

팀 최다 연승 기록을 경신한 광주는 K리그 최다 무패 기록도 갈아치웠다.

광주는 앞선 안산 홈경기 1-0 승리로, 지난 2017시즌 경남FC가 기록한 단일시즌 최다 무패 기록(18경기 연속)과 어깨를 나란히 했었다. 광주는 이날 승리로 19경기 연속 무패를 찍으며 K리그2 역사를 바꿨다.

2위 부산아이파크(11승 5무 3패·38점) 역시 수원FC전서 1-0승리를 거두면서 1위 광주(13승 6무·승점 45)와의 격차는 그대로 7점 차를 유지했다.

풍성해진 로테이션으로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광주는 이번 경기에서도 그 저력을 과시했다. 이번에는 외국인 선수 윌리안이 주인공이 됐다.

전반 23분 하프라인 부근에서 길게 올라온 공을 잡은 윌리안이 페널티 박스에서 수비수 한 명을 따돌린 뒤 침착하게 오른발로 슈팅을 날리며 수비벽을 뚫었다. 공은 골대 오른쪽을 꿰뚫고 광주의 선제골이 됐다.

거센 공세에도 추가골을 넣지 못했던 광주가 후반 15분 두 번째 골 세리모니를 펼쳤다.

공격의 시작점에 윌리안이 있었다.

하프라인에서 공을 잡은 윌리안이 그대로 페널티 지역으로 진입했다. 그리고 상대 골키퍼 김영광까지 마주한 윌리안이 오른쪽으로 패스를 했고 골대 앞에 있던 김정환이 왼발로 슬쩍 공을 밀어 넣었다.

김정환의 시즌 두 번째 골이자 윌리안의 시즌 첫 번째 도움이 기록된 순간이었다.

2-0을 만든 광주는 철벽 수비를 과시하면서 무실점으로 최다 무패 기록을 새로 썼다.

‘해결사’ 펠리페의 침묵에도 광주의 공격 루트가 다양화되면서 브레이크 없는 광주의 질주가 이어지고 있다.

전남 드래곤즈도 한찬희의 결승골을 앞세워 기분 좋은 승리 소식을 전했다.

전남은 광양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대전 시티즌과의 경기에서 2-0 승리를 기록하면서 3경기 연속 무패를 이뤘다.

전반 7분 만에 한찬희가 골을 넣으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브루노의 컷백 패스를 받은 한찬희가 논스톱으로 슈팅을 날렸고 이내 대전의 골망이 흔들렸다.

전반 28분에는 김건웅의 킬패스가 상대의 허를 찔렀다. 수비 진영에서 공을 낚아챈 김건웅이 길게 공을 올려주었고, 공을 잡은 최재훈이 빠르게 상대 진영으로 침투한 뒤 왼발로 득점에 성공했다.

부심의 오프사이드 깃발이 올라갔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골이 인정됐다.

이후 실점 없이 경기를 끝내면서 전남은 시즌 6승에 성공, 승점 22점으로 8위 자리를 지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불펜이 야속해

류현진, 보스턴전 7이닝 2실점 호투
구원투수 난조에 시즌 11승 물거품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후반기 첫 등판에서 시즌 11승 달성을 앞뒀다가 구원 투수의 난조로 허탈하게 물러났다.

류현진은 15일 열린 2019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안타 8개를 맞았지만 2점으로 보스턴 강타선을 틀어막았다.

작년 월드시리즈(WS) 챔피언 보스턴을 맞아 삼진 6개를 낚고 볼넷 1개를 허용했다.

미국 스포츠전문 케이블채널 ESPN이 ‘선데이 나이트 베이스볼’로 편성해 미국 전역으로 중계한 경기에서 류현진은 1점대 평균자책점을 유지한 것에 만족했다.

시즌 15번째 퀄리티스타트(QS·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투구)를 펼친 류현진은 4-2로 앞선 8회 말 페드로 바에스에게 배턴을 넘겼다.

그러나 바에스가 산더르 보하르츠, J.D. 마르티네즈에게 연속 솔로포를 맞아 4-4 동점을 허용한 바람에 류현진의 승리는 날아갔다.

불펜이 류현진의 승리를 허사로 만든 건 6월 11일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의 경기 이후 시즌 두 번째다.

연장 11회 말 2사 만루의 끝내기 고비를 넘긴 다저스는 연장 12회 초 무사 만루에서 밀어내기 볼넷으로 결승점을 얻고 알렉스 버두고의 적시타, 내야 땅볼을 묶어 3점을 보태 7-4로 이겼다.

지난 10일 올스타전에서 한국인 빅리거 최초로 선발 등판해 1이닝을 무실점으로 던진 뒤 닷새 만에 등판한 류현진은 1회에만 공 24개를 던져 안타 5개를 맞고 2실점 했다.

한차례 폭풍이 지나간 뒤 류현진은 빠르게 안정을 찾았다.

전매특허인 체인지업과 커브, 컷 패스트볼을 적절히 섞어 2회부터 3이닝 연속 삼자범퇴로 이닝을 끝냈다. 3이닝 동안 투구 수도 30개에 불과했다.

류현진은 1회 8번 타자부터 5회 1번 베츠까지 12명의 타자를 범타로 요리했다.

5회 2사 후 데버스를 3루수 내야 안타에 이은 3루수의 송구 실책으로 2루로 보낸 류현진은 보하르츠에게 볼넷을 허용해 두 번째 위기를 맞았다.

류현진은 고비에서 4번 타자 마르티네즈에게 좌전 안타를 맞아 실점하는 듯했으나 좌익수 버두고가 ‘레이저 송구’로 홈에서 데버스를 잡아내며 류현진을 위기에서 구했다.

또 삼자범퇴로 6회를 넘긴 류현진은 7회 2사 후 베츠에게 11m 높이의 좌측 ‘그린 몬스터’ 상단을 맞히는 2루타를 허용했지만, 2루수 땅볼로 잡고 추가 실점 없이 임무를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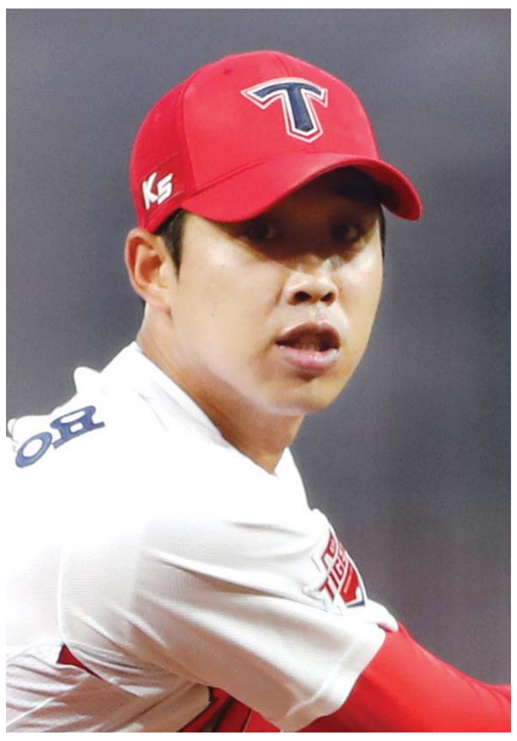
/연합뉴스

KIA의 ‘희망가’

타이거즈 전망대

■KBO중간순위 (15일 현재)

순	팀명	경기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SK	93	62	30	1	0.674	0.0
2	두산	94	57	37	0	0.606	6.0
3	키움	95	56	39	0	0.589	7.5
4	LG	92	51	40	1	0.560	10.5
5	NC	91	44	46	1	0.489	17.0
6	KT	94	44	49	1	0.473	18.5
7	삼성	91	39	51	1	0.433	22.0
8	KIA	93	38	54	1	0.413	24.0
9	한화	91	35	56	0	0.385	26.5
10	롯데	92	33	57	2	0.367	28.0


임기영

이우성

오늘부터 롯데와 3연전 후 전반기 마무리…19·20일 창원서 올스타전
임기영 선발 복귀 ‘천군만마’·이우성 최근 5홈런 차세대 거포 ‘기대감’
롯데전, 투·타 밸런스 등 후반기 성적 가늠자…26일 두산과 첫 경기

KIA 타이거즈가 안방에서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를 치른다.

숨 가쁘게 달려왔던 2019 KBO리그가 18일 경기를 끝으로 잠시 휴식에 들어간다.

오는 19일과 20일 창원NC파크에서 ‘별들의 잔치’인 2019올스타전이 치러진 뒤 올스타 브레이크가 시작된다. 이후 KIA는 26일 잠실로 가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후반기 일정을 시작하게 된다.

KIA는 16일부터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로 안방에서 전반기 마지막 3연전을 치른다.

사연 많고 일 많았던 KIA의 전반기였다.

믿었던 베테랑 타자들의 동반 부진에 ‘에이스’ 양현종의 난조까지 겹치면서 힘든 봄날을 보냈다. 김기태 감독이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고, ‘만루 사나이’ 이범호는 지난 13일 은퇴식을 갖고 그라운드를 떠났다.

박흥식 감독대행 체제로 새 판이 짜였지만 투타의 엇박자 속에 여전히 KIA의 자리는 8위다.

하위권 싸움 중인 삼성 라이온즈, 한화 이글스를 연달아 만났던 지난주에도 KIA는 2승 3패로 승률 높이기에 실패했다. 삼성과의 원정 경기에서는 한 경기를 비 때문에 쉬었고 남은 두 경기에서는 모두 역전패를 기록했다.

양현종의 연승 행진 속에 연패에서 벗어난 KIA는 지난 13일 떠나는 이범호에게 승리를 선물하지 못했지만, 14일 승리를 챙기면서 간신히 2승 3패로 한주를 마감했다.

KIA는 전반기 마지막 3연전을 통해 후반기 반격의 동력을 찾는다.

마운드에서는 임기영, 타석에서는 이우성에게 시선이 집중된다.

KIA는 올 시즌 4·5선발 퍼즐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선수들을 투입하고 있다.

임기영은 가장 먼저 선발로 테스트를 받았었다.

그러나 임기영은 3월 26일 한화전 선발로 나서 4이닝 8실점으로 부진했고 바로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다. 6월 28일 KT전에서 구원 등판해 복귀전을 치렀던 임기영은 이후 두 경기 역시 불펜에서 소화했다.

임기영은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의 첫 경기에서 선발로 출격해 반전의 후반기를 위한 어필 무대를 갖는다.

이우성은 우타거포 부재로 고민하던 KIA에 시원한 한방을 잇달아 선물하고 있다.

지난 12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0-0으로 맞선 4회말 1사 2·3루서 중앙 담장을 넘기면서 결승타 주인공이 됐던 이우성은 14일에는 두 번이나 그라운드를 돌았다.

3회 솔로포를 날린 이우성은 8회말 8-7의 박빙의 리드 상황에서 승리의 추를 기울이는 투런포를 쏘아 올리면서 환호성을 받았다.

이우성은 NC 소속으로 챔피언스필드를 찾았던 지난 2일과 4일에도 홈런포를 쏘아올리면서 존재감을 드러냈었다. 특히 올 시즌 기록한 6개의 홈런 중 5개가 챔피언스필드에서 나올 정도로 이우성에게는 호흡이 딱 맞는 안방이다.

KIA가 전반기 마지막 3연전에서 승리와 함께 미래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